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음모를 허무는 지혜 (느 6:1-14)

느헤미야는 그를 대적하는 이들의 치밀한 음모를 허물어뜨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갑작스럽게 평화협상을 제의 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이도 저도 안 되자 느헤미야의 친구를 매수하여 그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음모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박노철 목사

1. 사명에만 집중하였다.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서 화해하자고 합니다(2절).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음모였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6:2).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끊임없는 평화협상의 제스처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목적밖에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2.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다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입의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는 것, 이것이 악성루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입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고,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악성 루머에 대해서 복잡하게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실무근의 소문은 무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했다

이도 저도 안되자 원수들은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가까운 친구를 돈으로 매수해 느헤미야를 이단으로 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10절).

느헤미야는 누군가 죽이려 하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라는 친구의 꾀임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죽는 한이 있어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같은 지혜는 그의 거룩한 기도 습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중상모략과 악성루머와 살해위협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순간 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느 때 고난이 닥칠지 모르나 그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명에 집중하므로, 지혜의 말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또한 항상 기도하므로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Wisdom that demolishes a conspiracy (Neh 6:1-14)

Nehemiah overcame his adversaries calculated conspiracy and finally gained victory. His enemies, all of a sudden, proposed the negotiation of peace, and spread a malignant rumor. Since the situation was neither one, nor the other, his enemies bribed Nehemiah's friends to bring upon trouble. However, Nehemiah fully defeated his enemy's conspiracy and gained a victory.

1. He concentrated on the mission

Sanballat and Geshem sent his messengers to Nehemiah to meditate a settlement(v.2). They wanted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Nehemiah found out their conspiracy right away. Since Nehemiah didn't receive their proposal, they showed stubbornness in which they sent their messengers four times.

"So I sent messengers to them with this reply: 'I am carrying on a great project and cannot go down. Why should the work stop while I leave it and go down to you?'"(6:2) Nehemiah realized the enemy's conspiracy and was able to reject their endless gesture for a peace negotiation, because he concentrated on his mission, what he had to do. Though Nehemiah had other issues come in front of his path, he had no interest except the rebuilding the wall of Jerusalem.

2. He was clear in his yes, or no

The strongest way for the enemy, the devil to pull down the church and disturb God, are to use our mouths that we speak through. When there is something similar, people explain it differently; which is a malignant rumor. Therefore, we must always watch our mouth and be careful with what we say. The Apostle James said, "If one doesn't make a mistake, he is a flawless man." "As the smallest spark could cause to bum mountains, the tongue bums people." Nehemiah did not need to provide a rebuttal concerning the enemy's malignant rumor, but only to simply answer them with a yes or no. He ignored the ungrounded rumor and told them "Nothing is No," and only kept on doing his work. Jesus says,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Matt 5:37).

3. He ac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word of God

As they fell between two stools, to the last they bribed Nehemiah's close friends with money and attempted to portray him as a heresy(v. 10). His friends said and tempted Nehemiah, "someone will kill you, so you go to God's temple and stay there." However, because he clearly knew God's word, which prohibits anyone who is not a priest to enter the temple, he did not enter it, even though it could mean him losing his life.

My beloved Christians!

Nehemiah's wisdom, like this, came from his habit of holy prayer. In the midst of slander, a malignant rumor, and the threat of slaughter, he prayed every moment. In our life, we do not know when sufferings will approach us. However, each time like Nehemiah's mission, by concentrating on his mission, with wise words, with the posture to obey God's word, and by pray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victorious also when enemies come in one way, and run away in seven different way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 교육1국 7.24(주)-26(화) / 서울교회
- 중등부 7.25(월)-27(수) / 아가페타운
- 에바다부 7.28(목)-30(토) / 아가페타운
- 영어예배부 7.29(금)-30(토) / 아가페타운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의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26일(화)까지 3일간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아가페 타운에서,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는 28일(목)

부터 30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영어예배부 여름수련회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는 즐거운 수련회를 위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린다.

다락방 모임 방학 및 다락방장 일일수련회 안내

1 다락방 모임 방학

· 기간 : 7월 17일(주일)~8월 21일(주일)

2 다락방장 일일수련회

· 일시 : 2011년 8월 26일(금) 09:00 ~ 17:00

· 대상 : 서울교회 다락방장(부다락방장)

· 장소 : 아가페타운

· 내용 : 다락방장(부다락방장) 일일 영성수련회

· 강사 : 박노철 목사, 유문건 목사

· 기타 : 자녀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준비 예정

7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독> : 6교구 강영순 1권사, 6교구 서영세 권사
13교구 오혜경 집사

<1독> : 5교구 최학인 장로, 6교구 이덕빈 집사
6교구 이영희 7 권사, 14교구 김우숙 권사
16교구 장호림 집사

지난 주 우리 교회는...



대학부 수련회에서 강의 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고등부 수련회에서 강의 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멀티미디어단 봉사 단원 모집

서울교회 홈페이지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교회홍보 및 복음에 유익한 내용을 기획하고, 이를 리포트 및 영상형태의 뉴스를 제작하여 이를 교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페이지관련 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향상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멀티미디어단 봉사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회홍보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육성 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704호에서 할 수 있다.
*모집분야 : 기획, 리포트, 작가, 영상촬영, 편집, 사진촬영, 홈페이지 관리

13교구 농촌전도 및 봉사 계획

13교구(지도:노현상 목사, 교구장: 조정식 장로)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각 개인의 신앙성장 및 교구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1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흥교회(담임 김광근 목사)로 농촌전도 및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서흥교회는 우리 교회의 농어촌100교회 후원교회이며, 전형적인 농촌교회로서 지역주민들과 교인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연령이다. 현재 주일에 40-5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인근 부대장병들도 20여명 참석하고 있다.

13교구 소속 교인 중 희망자가 참가하게 되며, 전도, 이미용, 의료봉사, 주방봉사팀을 중심으로 전도집회, 영농지원, 경로잔치, 군부대 방문 전도집회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40명 이내의 규모가 될 계획이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2]

(문 10)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정말 죽었습니까?

(답) : 창세기 2:27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3:4에서는 사단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던 날 죽지 죽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3:8-19) 그렇다면 사단이 옳았던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허위로 끝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그날 죽은 것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육신은 그 후 백 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창 5:5)

성경에서는 3종류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육신적 죽음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육은 먼지(흙)로 돌아가고 영은 그 존재를 쉬게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던 날 육신적으로 사형 언도는 떨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집행이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몸의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 25:8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앞서 간 이들과 인격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옅은 외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했습니다. 단 12:2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요 5:28-29, 고전 11:30, 15:51, 살전 4:14:15 등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둘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당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즉 저버 서늘할 때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창 3:8)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3:10) 결국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엡 2:1-3)라 했고 사단의 길을 쫓고 육체의 정욕과 불순종과 진노의 자식으로 정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영이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롬 8:8)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자요 자력구원이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나 사랑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의 상태였습니다. 결국 창 3:15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구원 받기까지는 그 영은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즉 계 20:14의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최후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치 않은 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불못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계 21:8) 영적 죽음을 당한 이들이 육신의 죽음이 올 때 가는 곳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다음 주 계속)

선교사 도고팀 소개 - 정상진, 홍성임 선교사(팔라우)

선교의 씨앗이 되기를...

서울교회가 파송한 정상진, 홍성임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팔라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보호 정정지역 국가로 인구 2만 5천명의 작은 섬나라이다. 정책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데다가 이단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린 곳이라서 팔라우 국민들의 삶은 '영육간에 변화가 없는 삶'으로 요약할 수



3의 정상진, 홍성임 선교사들이 나타난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인근에서 축호전도를 마치고 10여명 남짓 모이는 팔라우선교도고팀. 10년째 팔라우 선교에 충성하고 있는 두분 선교사들이 지난해 서울교회의 명으로 다시 현지로 파송받은 이후 7개월째 도고기도모임을 이어오

고 있다. 운송지 권사팀장은 매주 주보 형태의 순서지를 배부하고 기독교책을 기록하여 주중에도 다락방과 가정에서 쉬지않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도고기도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학기 세계선교대학에 동참하며 현지 사역의 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한 기도를 올린다. 팔라우의 특성상 점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오래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과 따뜻한 사랑을 부탁"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도고기도팀은 또한 최근 미 유수의 기독교대학원과 대학에 진학, 재학 중인 두 딸(에스더, 해린)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 팔라우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왔던 두 자녀는 각각 기독교 지도자와 치과의의 꿈을 가지고 대를 이어 주의 일꾼으로 헌신할 소망을 갖고 있다. 열방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도고기도팀,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고 있다. 운송지 권사팀장은 매주 주보 형태의 순서지를 배부하고 기독교책을 기록하여 주중에도 다락방과 가정에서 쉬지않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도고기도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학기 세계선교대학에 동참하며 현지 사역의 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한 기도를 올린다. 팔라우의 특성상 점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오래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과 따뜻한 사랑을 부탁"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고 있다. 운송지 권사팀장은 매주 주보 형태의 순서지를 배부하고 기독교책을 기록하여 주중에도 다락방과 가정에서 쉬지않고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도고기도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학기 세계선교대학에 동참하며 현지 사역의 과정 하나하나에 세심한 기도를 올린다. 팔라우의 특성상 점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오래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과 따뜻한 사랑을 부탁"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나소정 집사(편집부)

나의 하나님

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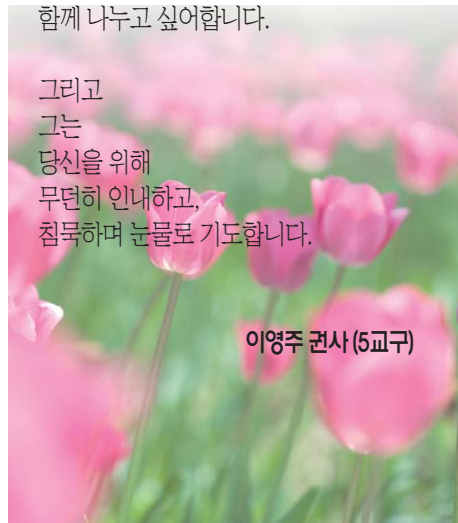
당신이 편안히 쉬고 있는 그자리는 누군가 피곤한 당신을 위해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놓은 자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불편함을 도와주기위해 오늘도 수고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갖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 무뎠던 인내하고, 침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영주 권사(5교구)



엘리아 선교회, 에스더 전도회 농촌전도 봉사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김중철 집사 (엘리아남성교회 회장)

2011.7.16 아침, 우리의 농촌전도봉사활동은 갑자기 개인 날씨로 춘천행 버스 안을 환호로 뒤덮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전도 계획을 확정 한후 임원들은 5월 20일 현지 답사를 다녀오고 현



2011/07/16 15:51

지 사정을 고려하여 행사목표를 어린심령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교회당 건물 페인트 도색도 하기로 하였으며 현지 주민들과 성도님들, 어린이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식사대접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의 행사 항목을 결정하고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일의 날씨였습니다. 현지 교회사정을 고

려하여 일정을 정할 때, 장마철과 겹치게 되리라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닥쳐오는 장마철날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 무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아 모든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모든 회원이 기도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새벽기도회등 기회 있을때마다 마음줄이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려하여 일정을 정할 때, 장마철과 겹치게 되리라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을 즐기면서, 초조하게 맞이하게 된 7월 16일 아침, 하영수 장로님의 진심어린 출발기도가 있을때까지만해도걱정스럽던 날씨가 춘천이 가까워 오면서 내리던 부슬비가 그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날 우리도 동산교회도 모두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현지 어린이, 중학생, 어른 포함, 52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가운데 식사대접을 하였으며, 에스더전도회에서 준비한 인형극, 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으로 귀한 복음전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리는 비로 페인트도색작업은 마칠 수 없었으나 준비해간 모든 자재를 인계하고왔기 때문에 교회당 도색을 산뜻하게 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려와 긴장으로 시작한 이번 전도 행사는 많은 회원님들의 협조와 기도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차함 집사(2교구)



저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새가족부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로 저는 새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에게 성경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수료하신 한 형제님은 믿는 아내의 권유로 새가족부로 처음 왔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매주 새가족부과정에 참석하며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배우며 깨달아 갔습니다. 그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새가족부를 수료한 후 세례문답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소요리문답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배 교사님의 새가족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분을 보며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 다. 지난 해에 수료하신 나이 지긋한 한 부부께서는 집이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밝은 얼굴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분들은 새가족부 수료후에도 한동안 자주 새가족부에 들러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사로 섬기는 권사님께서서는 그 분들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기도제목들을 자세히 알고 계셨고 그 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자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

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안 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참으로 그 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분들도 권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의 눈빛을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박노철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를 새가족부 교사로 불러주셔서 새가족들을 사랑하며 이러한 신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셋째로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매주 수료자 소감을 듣는 시간이 참으로 기대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서울교회에 처음 오실 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떠안고 왔지만 새가족부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분, 서울교회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감사하신다는 분, 새가족부 기간동안 자신의 믿음을 돌아 보았고 앞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겠다고 말씀하신 분, 새가족부 기간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신 분... 이런 분들의 수료소감을 들면서 저는 각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새가족부에 오신 모든 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있는 말씀이 풍성한 우리 서울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의 뜻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류중기집사의 테너 독창과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연주곡은 독창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이윤영)", "하나님의 은혜(신상우)"와 임마누엘 찬양대원인 박주리박세아,이민주성도와 류중기집사가 함께 부르는 "거룩하시다(베를리우스)"등 세곡이며, 김복희집사(임마누엘 찬양대원)가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고, 미국 맨해튼 음대 대학원 재학중에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김지영성도가 바이올린 협연을 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5일(월) 전복 익산 왕촌교회 주회 제17회 청소년초청 말씀수련회 개최예배 설교를 한다. 27일(수) Save N.K(북한구원운동)이사회를 소집한다. 29일(금) 한국장로신문사 창간 38주년기념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 파이프 오르간 초청 독주회 : 11교구 최수향 성도(예루살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초청 독주회 장소 : 하늘꿈 교회 예루살렘 성전 일시 : 24일(주일) 오후7시

■ 교역자 휴가 : 유문건 목사 7.27(수)-8.2(화) (주일제외), 대행 : 노현상 목사

■ 주간식당 봉사 : 도르가전도회(7.24) 루디아전도회(7.31)

■ 금주의 식사 : 15교구 신용식 장로 김신영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삼성로, 주차단속 강화

일부 성도들의 무책임한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강력한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공문에 의하면 버스정류장(뚝말 전후 각 10m씩)에 교회에서 세운 주차금지 표지를 옮기고 주차, 비상등 켜고 이중으로 나란히 주차, 아파트 진출로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 발생, 아파트 단지 안에 암체주차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런 차량이 한 대라도 있을시 모든 차량을 견인한다. 강남구민회관(대치역사거리 개포동 방향에 위치) 주차장을 주일예배 시간에 주차를 허락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은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7월 16일(토) 새가족 환영회에서 설교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아가페타운 피아노 기증

아가페 타운에서는 교육용으로 쓰일 피아노를 기증 받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기증자 : 1교구 이명구 성도 문옥일 집사 가정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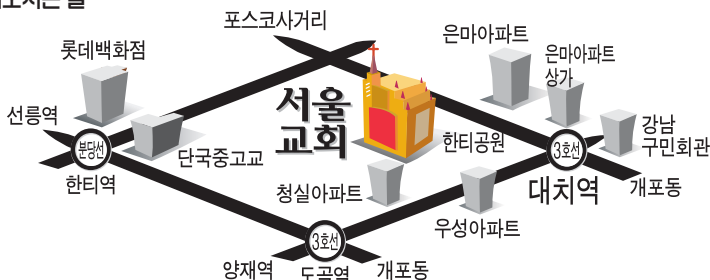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 되고 있는 2011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말씀의 도전과 삶의 변화가 풍성하도록
2. 교회 주변 주차 문제가 모든 성도의 솔선수범으로 해결되며 지역의 밝은 등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3. 8월 1일 출국하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원들을 영육간에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